

지역 소식통

김제시, 창의적 세외수입 운영사례 '최우수'

김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지난 10일 발표한 지방세 외수입 우수사례 심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심사는 코로나19로 인해 1~2차 심사를 모두 서면심사로 대체하였다.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층 심사를 거쳐, 참여한 지자체 중 김제시를 포함한 15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수상자 김미리 주무관은 직원 4대보험료 납부방식을 현금납부에서 법인카드 납부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연 49백만원의 카드적립금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창출하여 신규수입원 발굴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상과 최우수상에 선발된 사례는 12월 열린 예정인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및 교부세 인센티브를 두고 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 분야 사례들과 경쟁하게 된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 모범사례로 전파된다.

세외수입이란 세금 외에 각 지자체가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입으로 공공시설·재산 사용료나 수수료, 분담금, 과태료, 위약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포함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농촌자원분야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농촌자원분야 경진대회에서 완주군 블랙베리연구회(대표 원종성)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농촌자원분야 중 농작업안전관리실천 경진대회로 지역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농가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농촌자원사업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행사다.

평가는 농작업 안전 기록 관리, 농작업 안전관리 개선실천, 농업인 안전교육운영, 파급효과 등의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올해 완주군 블랙베리연구회(16명)는 농작업 위험요소를 분석·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받으면서, 안전관리기록, 주기적인 안전교육과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수, 국가예산 확보 강행군

국회 예결위 의원실 방문

내년 국비건의 총력

박성일 완주군수가 지난주에 이어 12일 국회를 다시 방문,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군수는 예결위, 산자위 위원실을 방문하여 군 중점사업을 설명하고 2021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먼저 완주 소양 출신인 산자위 이수진 의원을 방문해 전북형 수소경제 신산업 육성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완주군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수소소용차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 및 제조지원 사업, 수소용품 안전기반 구축사업(가칭) 공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완주군은 '2025 완주 수소도시'를 목표로 ▲수소소시범도시 ▲수소소용차 산업 육성 ▲수소저장용기 산업 육성의 3대 비전과 ▲수소 상용차 관련산업 인프라 집중 육성(집적화) ▲수소 특화 국가산단 조성 ▲수소용품 안전기반 구축 ▲한국수소산업진흥원 설립 유치 ▲혁신도시 지역균형 뉴딜 거



박성일 완주군수가 12일 국회 예결위 정운천 의원을 찾아 현안을 건의하고 있다.

점화 등 5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수소소산업을 미래 100년 '신안주 실현'을 위한 신성장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뒤이어 예결위 정운천 의원을 만나 출판문화 복합 클러스터 조성, 국립 나리꽃 무궁화연구소 조성,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구축 및 제조지원 사업, 소양 소재지 진입로 개설(국도26호선), 국도17호선 장선지구 위험도로 개선 등 완주군 국가예산 중점 확보 대상사업이 반드시 예결위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건의했다.

박성일 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지

자체 세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예산 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비 확보를 통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수소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100년 '신안주시'대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예결위가 끝나는 11월말까지 국회단체 집중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부서 및 지휘부 추가 방문 등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전북도 및 정치권과의 유기적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만전을 기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자살률 대폭 감소

전북 자살 사망률 1위에서 6위로 하락... 행안부장관상 등 표창

김제시보건소(소장 서흥기)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여성숙)는 생명존중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전년 대비 자살률이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김제시는 2019년 자살 사망자 수가 27명으로 2018년 36명보다 9명 감소(25% 감소)하였으며, 전북에서 자살 사망률이 종합(연령별) 1위에서 6위로 하락하는 큰 성과를 이뤘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안전망 연계 구축을 위한 이통장, 소방서, 경찰서, 약사, 택시기사,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구성된 생명지킴이 활동가 양성, 찾아가는 마음행복 상담소 운영으로 정신건강 척도검사 실시, 생명사랑 환경 조성으로 생명사랑 그림자 조명(김제수변공원) 및 LED 조명(금령저수지, 능제저수지)설치, 생애주기별 생명사랑교육, 자살 고위험군 맞춤형 사례관리, 농촌지역 특성을 살

린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응급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자살위험군의 발견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살률 감소를 위해 365일 현장출동이 가능하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3년 연속 자살률이 종합 1위에서 큰 폭으로 6위로 감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상과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표창으로 전라북도지사상을 받는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은 자살 취약계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심각한 문제에 대해 맞춤형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자살률 감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자살 없는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식품기업인 간담회 개최

경제위기 극복 위해 기업 애로사항 청취·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12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김제시 식품 기업인 대표와 임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식품관련 용자 지원사업 등 시책 안내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 대책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식품 기업인들은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업경영 악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출품 물류비용 상승, 우수인력 구인난 등을 호소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헤쳐 나가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참고) 김운권 대표는 "이번 간담회가 식품 기업 경영 시 도움이 될 정



김제시는 12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김제시 식품 기업인 대표와 임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공유와 상생협력 방안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며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정책들이 더 많이 마련돼, 김제시와 식품 기업인들이 함께 현재의 위기를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준배 시장은 "기업인과 힘을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김제경제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식품기업인들은 해마다 가파른 지역인구 감소로 인해 인구절벽이 현실화된 우리 고향 김제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지역사회와 관심과 실천을 촉발해 위기를 극복해가는 취지로 인구늘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농촌자원분야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농촌진흥청에서 주관 농촌자원분야 경진대회에서 완주군 블랙베리연구회(대표 원종성)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농촌자원분야 중 농작업안전관리실천 경진대회로 지역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농가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농촌자원사업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행사다.

이번 평가는 농작업 안전 기록 관리, 농작업 안전관리 개선실천, 농업인 안전교육운영, 파급효과 등의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경진방법은 1차 서류심사를 거쳐 7팀을 선정, 2차 심사는 발

표영상 및 ppt자료로 진행했으며, 농작업 안전관리 주요활동 및 실천내용, 안전관리체계구축 및 성과, 발표동영상자료 및 질의응답내용 등을 종합해 최종 평가했다.

올해 완주군 블랙베리연구회(16명)는 농작업 위험요소를 분석·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받으면서, 안전관리기록, 주기적인 안전교육과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했다.

농작업안전관리 실천활동을 통해 연구회원들의 농작업위험요인이 기존보다 36% 감소했고, 안전관리 생활환경 등은 13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무궁화 오토캠핑장 인기몰이

완주군 무궁화오토캠핑장이 최근 인기몰이 중이다. 높아지는 캠핑열기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해 밀폐된 실내보다는 야외를 선호하는 분위기에 무궁화오토캠핑장이 각광받고 있다.

12일 완주군에 주말의 경우 예약이 오픈되자마자 바로 완료되며, 최근엔 평일에도 예약이 증가하고 있다.

고산문화공원 내에 위치한 무궁화오토캠핑장은 약 3만㎡의 부지에 81면의 캠핑사이트와 8개의 캐러밴을 비롯해 취사장, 음수대 및 전기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다.

고산문화공원에는 무궁화전시관, 만

경강수생생물체험과학관 등의 체험전시관도 위치하며, 다양한 식물이 식재되어 있는 무궁화동산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산책로도 위치하고 있다.

무궁화오토캠핑장은 완주(에서 승용차로 20분 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아 전국 각지에서도 많이 방문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방문객에 대해서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방문객 명단을 작성하고 있으며, 방역지원단이 수시로 방역소독 및 환기를 실시해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점도 인기요인 중 하나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